



프로스포츠 존재의 이유, 스포츠 팬덤

관중과 함께하는 스포츠

스포츠 경기장에 가면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볼 수 있다. 가족 단위의 관중, 친구 끼리 온 관중, 혼자 관람을 즐기는 관중 등 여러 분류가 있지만 단연코 우리의 눈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구단과 선수를 큰 소리로 응원하는 관중들이다. 그들은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박수, 클래퍼(Clapper)를 치거나 깃발을 흔든다. 이렇게 특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관중을 우리는 ‘팬’이라고 칭하고, 그 단체를 ‘팬덤(fandom)’이라 칭한다. 팬덤이란 ‘가수, 배우, 운동선수 따위의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

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뜻한다.

팬덤이 큰 구단은 그만큼 많은 관중을 끌어들인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구단의 경제적 자원이 된다. 프로축구의 FC 서울, 울산 현대 등 몇몇 구단은 애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수단 등번호 중 서포터즈 번호를 지정하고 이를 영구결번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팬들은 응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풀어내기 힘든 열정을 쏟아내고, 구단은 그를 통해 팀을 운영하는 원원 구조를 이룬다.



부산KT소닉붐(현 수원KT소닉붐) 관중들이 자신들만의 전매특허 ‘때밀이 응원’을 하고 있다.
출처: KT 공식 블로그

응원이 이겨야 선수들도 이길 수 있다

‘응원이 활발한 스포츠 리그’ 하면 대부분이 프로야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열렬한 현장의 자세한 경험을 듣고자 LG트윈스 북돌이로 활동했던 사회체육학과 18학년 조성찬 학우와 인터뷰를 나눴다.

Q. 경기 전, 북돌이와 응원단은 어떻게 응원을 준비하나요?

A. 제가 근무한 잠실 야구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장 내 응원단실에서 치어리더랑 고(북을 치는) 고수, 마스코트 인형이랑 같이 준비해요. 응원단장, 치어리더와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함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응원단장이 음향팀에 당일 사용할 노래를 알려주면 음향팀을 통해 북돌이들도 곡을 알게 되어 그에 따라 준비합니다.

Q. 북돌이 전용 응원 매뉴얼이 존재하나요?

A. 구체적인 응원 매뉴얼은 없지만, 아무래도 음악이다 보니 박자가 안 맞으면 관중석이 순간적으로 정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박 이상은 쳐야 하고, 박자를 틀리면 안 돼요. 그 외에는 경기와 응원 분위기 등 상황에 맞게 응원단장이 요청하

Q. 팬 대표 입장에서 좋은 경기를 위해 응원을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나요?

A. LG 트윈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 구단이 북돌이를 기용해요. 그래서 타 팀이랑 경기하다 보면 타 팀의 북소리가 더 우렁차고 리듬감 있을 때 ‘우리가 응원이라도 이겨야 선수들이 힘을 내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구단 프런트에서도 어느 정도의 압박을 주기도 해요. 가끔씩 두산과의 경기 때 두산 북에 비해 우리 북이 약할 때는 새 북을 사용해 최대한 북소리라도 이길 수 있게끔 노력해요. 북돌이들도 응원에서 이겨야 선수들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Q. 다른 스포츠허 비교되는 야구만의 응원 문화 특이점이 있나요?

A. 축구, 배구 등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야

국의 스포츠 응원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따져보면 주로 2000년대 초반, 한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1990년대 ‘PC 통신 동호회’ 모임이 그 기원이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서포터즈들의 유럽과 남미식 응원 영상을 접한 팬들이 주축이 되어, 1995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축구 단체 관람을 진행했다. 국내 처음으로 자발적이면서 주체적인 단체 응원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서울을 연고로 하는 유공 코끼리 프로축구단(현재주 유나이티드)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 ‘유공 코끼리 팬클럽’이 결성되었다. 유공 코끼리 팬클럽을 주축으로 ‘새로운 응원문화의 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모여든 축구팬들이 특정 구단과 유대관계를 가지며 구단 서포터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각 구단 서포터즈들이 힘을 합쳐 1997년 결성한 것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서포터즈 ‘붉은악마’이다.

한국 프로축구의 서포터즈 역사처럼 대중매체의 발달은 응원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 스포츠 중계, 스포츠 선수의 미디어 출연 등이 활발해지며 ‘관람하는 스포츠’의 재미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스포츠 업계에서도 그들을 인식하고, 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포츠 리그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성장해나가 현재 한국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응원 양상을 보인다.

비슷한 듯 다른 한국 4대 프로리그 응원 문화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의 응원단은 주로 1명의 남자 응원단장과 여성 치어리딩 팀, 북돌이라 불리는 고수로 구성되어 있다. 응원단은 응원을 부르고 춤을 추며 팬들의 호응을 유도한다. 관중들은 응원단장의 주도에 따라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쏟아내고, 응원하는 팀이 수비를 할 때는 선수들과 함께 응원을 쉰다. 응원가에는 구단마다 각자의 특색이 살아있다. 유명한 노래를 개사하여 사용하거나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응원가를 작곡하기도 한다. 선수 개개인의 응원가가 존재하며, 이는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응원에서 감동받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응원 도구로는 구단 상징 색깔이나 엠블럼 무늬를 활용한 깃발과 풍선, 클래퍼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프로야구, 축구에서 비닐봉지를 이용한 ‘봉지 응원’도 볼 수 있었지만, 환경 문제로 현재는 금지되었다.

프로배구(V-리그), 프로농구(KBL)도 프로야구와의 경기 운영 방식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슷한 응원 문화가 나타난다. 특이점을 찾자면, 두 리그는 경기 중간중간 응원단장과 치어리더가 경기장으로 나가 응원을 주도하고 카드섹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로축구(K리그)도 앞선 다른 리그와 마찬가지로 응원가를 부르거나 깃발, 북 등



비닐봉지를 이용해 응원하는 롯데자이언츠팬들이다.

의 도구를 활용해 응원한다. 그러나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프로축구의 응원은 뜨겁고 자극적인 유럽, 남미의 방식을 빌려왔다. 그에 반해 프로야구의 방식은 아기자기한 미국식 응원이다. 또한, 프로축구에서는 팀 팬을 ‘서포터즈’라는 용어로 칭한다. 구단에서 운영하는 야구 응원단과 달리 이들은 팀에 큰 애정을 가진 팬들이 개인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조직이다. 축구는 타 종목과 달리 경기 중 쉬는 시간이 적다. 그렇기에 춤을 추는 등 이벤트성 응원보다 응원가나 선수 이름을 외치는 모습을 더 쉽게 볼 수 있다.



(위)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카드섹션 응원과 (아래)프로축구 수원삼성블루윙즈 서포터즈이다.
출처: (위)SBS Sports, (아래)수원삼성블루윙즈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 정신을 잃은 팬, 훌리건

스포츠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팬들과 대비되게 어느 집단이나 물을 흐리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훌리건(hooligan)’이라고 일컫는다. 훌리건이란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광적인 축구 관중을 뜻한다. 최근에는 축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스포츠맨십을 잃은 광적인 팬들을 훌리건이라 칭하기도 한다. 선수를 향한 심한 폭언과 구타 및 투척은 물론 타 구단 팬과 대립하거나 경기장에 위협이 되는 물품을 소지해 다른 관중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행동이 이에 포함된다.

미성숙한 스포츠 정신을 가진 훌리건은 21세기 현재 한국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이하 수원 삼성)와 FC 서울(이하 서울)의 축구 경기가 있었다. 수원 삼성과 서울은 오랜 라이벌 구단으로 두

팀의 경기는 ‘슈퍼매치’라 불리며 많은 축구팬들이 관심을 가진다. 가장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워야 했던 그날, 경기장에서 웃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전 경기장 밖에서 ‘팬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휴인 수원 삼성의 팬들이 서울 팬인 중학생 A군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서울 팬이 입고 있던 서울 유니폼을 벗으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훌리건 문화는 응원의 범주를 벗어난 범죄이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보여서는 안 될, 스포츠 정신을 잃은 가장 모순적인 행위이다. 용인될 수 있는 문화 중 하나라는 비합리한 말과 잘못된 인식으로 순수한 스포츠 팬덤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팬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박소영 기자 202220024@m365.ksnu.ac.kr



조성찬 학우가 LG트윈스 북돌이로 활동하며 북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LG트윈스 공식 유튜브